



GWANGJU F.C MATCHDAY PROGRAM

K LEAGUE
CHALLENGE



2013 No.16



VIEW

Today's Home Match



광주 vs 충주



11월 10일 (일) 14:00

Next Home Match

광주 vs 경찰 11월 23일 (토) 14:00



www.gwangjufc.com



@GWANGJU_FC



/gwangjufc



/gjfc0

Photo Gallery

2013/11/03 (일) 14:00 안양전



Data

2013 K리그 챌린지 순위

K LEAGUE
CHALLENGE

순위	구단	경기수	승점	승	무	패
1	상주상무피닉스	31	68	20	8	3
2	경철 축구단	31	58	18	4	9
3	광주FC	31	44	13	5	13
4	수원FC	31	41	11	8	12
5	FC안양	31	38	10	8	13
6	고양FC	31	38	9	11	11
7	부천FC	31	32	8	8	15
8	충주함멜	31	23	5	8	18

광주 FC 최근 5경기 전적

K LEAGUE
CHALLENGE

대회명	날짜	홈	스코어	원정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10/06	광주	3 - 1	경천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10/13	상주	2 - 1	광주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10/20	광주	0 - 3	부천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10/26	수원	2 - 1	광주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11/03	광주	4 - 0	안양

광주 FC 2013시즌 득점 순위

K LEAGUE
CHALLENGE

순위	선수명	득점	경기수	득점률
1	루시오	11	31	0.35
2	김호남	6	26	0.23
3	김은선	5	24	0.21

광주 FC 2013시즌 도움 순위

K LEAGUE
CHALLENGE

순위	선수명	도움	경기수	도움률
1	루시오	9	31	0.29
2	김호남	6	26	0.23
3	마철준	2	9	0.22

K리그 챌린지 2013 광주FC 홈 경기 일정

날짜	시간	HOME	AWAY
2013.04.20(토)	14:00	광주	고양
2013.04.28(일)	14:00	광주	경찰청
*2013.05.08(수)	19:00	광주	충주
2013.05.13(월)	19:00	광주	안양
2013.06.06(목)	14:00	광주	부천
2013.06.09(일)	19:00	광주	경찰
2013.06.30(일)	19:00	광주	상주
2013.07.06(토)	19:00	광주	충주
2013.08.04(일)	19:00	광주	고양
2013.08.19(월)	20:00	광주	경찰
2013.09.01(일)	16:00	광주	부천
2013.09.15(일)	16:00	광주	안양
2013.09.28(토)	14:00	광주	수원FC
2013.10.06(일)	14:00	광주	경찰
2013.10.20(일)	14:00	광주	부천
2013.11.03(일)	14:00	광주	안양
2013.11.10(일)	14:00	광주	충주
2013.11.23(토)	14:00	광주	경찰

*FA CUP 경기

 중흥S-클래스	 현학산농도시 광주	 KJB 광주은행
 Joma	 우미건설	 조선대학교병원
 GS&POINT	 미래투자증권 주식회사 그래미	 롯데시네마 수환 · 광주
 알래스카	 밝은안과21	 현학산농도시 청원의료재단
 사람방 신문 SRB Challenge Square	 TS 교통안전공단	 경주 지리산산상
 모아레포초터운(주)	 광주순왕병원	 광주광역시교육청 K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해모수 휴티니스 클럽	 중흥 골드스퀘어&리조트 Jungheung Gold square resort	 광남일보
 현학산농도시 월드	 민속촌	 무진주

Review

간만의 '골 폭풍'으로 안양을 삼키다!



무섭게 폭발한 광주의 공격력 앞에 상대는 그저 초라해질 뿐이었다. 여기에 수비진마저 안정감을 과시하며 흠 잡을 데 없는 모습을 보인 광주 FC는 3일 오후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제31라운드 FC안양과의 경기서 4-0으로 압승했다. 이 날 승리로 최근 3연패를 끊어낸 광주는 3위 자리를 지켰고 올 시즌 안양과의 상대전적에서도 2승 2무 1패로 우위를 점하는데 성공했다.

전반 6분 만에 선취골이 나오며 대승의 청신호가 켜졌다. 안양의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드리블을 시도하던 박현이 반대편에서 들어오던 김준엽에게 볼을 내줬다. 김준엽은 다시 뒤쪽의 루시오에게 연결했고 루시오는 상대 PK박스 바로 외곽 정면에서 특유의 원발 슈팅으로 선취골을 기록했다.

기세가 오른 광주는 볼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주도했고 결국 전반 막판 추가 득점에 성공한다. 전반 41분 수비진에서 한 번에 넘어온 볼을 박현이 잡고 돌파하는 과정에서 볼이 다소 길어지며 차단당하는 듯했다. 하지만 안양 수비수 김태봉과 GK 이진형이 서로 머뭇거리는 사이 끝까지 쇄도한 박현이 재치 있게 반대편으로 밀어 넣으며 스코어를 2-0으로 벌렸다.

후반전 역시 광주가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가운데 후반 13분 세 번째 골이 터진다. 안양 진영 한 복판에서 시도한 김은선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상대 GK 이종현이 엉겁결에 막아냈다. 하지만 문전 쇄도하던 이광진에게 정확히 걸렸고 이광진은 살짝 방향만 바꿔놓으며 안양의 골망을 흔들었다. 승기를 잡은 광주 선수들은 여유 넘치는 경기 운영능력을 보였고 후반 35분 김준엽이 강력한 오른발 직접 프리킥 골까지 터뜨리며 4-0 승리에 방점을 찍었다.

Preview

광주, 시즌 막바지 연승행진에 나선다



지난 주말 안양을 대파하고 연패의 늪에서 탈출한 광주가 이번에는 충주를 잡고 시즌 막바지에 연승행진에 시동을 걸 수 있을까? 남기일 감독대행이 이끄는 광주FC가 오는 11월 10일 일요일 오후 2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최근 6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달리는 충주htm을 상대로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제32라운드 경기를 펼친다.

일단 안양전을 통해 공격진이 두루 골 맛을 보며 감각을 회복했다는 게 고무적이다. 슈팅 뿐 아니라 상대 진영 측면과 페널티박스 근처에서 동료들 간 패스와 침투 모두 빠르고 조직적이었다. 박현의 최근 몸놀림이 매우 가볍고 이광진은 패스, 드리블, 슈팅 등 어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다. 임선영은 특유의 테크닉으로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활기를 불어넣는다.

모처럼 무실점 경기를 펼친 수비라인 역시 상승세를 잇겠다는 각오다. '최고참' 마철준은 노련함과 팀 장악력으로 수비라인을 지휘하고 있고 정우인의 탄탄함은 두 말 하면 잔소리다. 부상에서 회복한 오른쪽 윙백 김수범은 빠르게 경기력을 찾아가고 있고 팀 사정상 여름과 김준엽이 번갈아 맡는 왼쪽 윙백자리 역시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양호한 모습이다.

지난 안양전이 자신의 시즌 첫 선발출장이었던 골키퍼 제종현도 본인에게 기회를 준 남기일 감독대행의 기대에 무실점으로 부응하며 시즌 막바지 주전 골키퍼 경쟁구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충주 - 늦게나마 갖춘 수비라인의 안정감



최근 충주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상주의 10연승 행진 다음으로 K리그 챌린지에서 화제가 되는 게 바로 '꼴찌' 충주의 6경기 연속 무패행진이다. 나름 짜임새 있는 중원을 갖췄지만 빈약한 결정력과 허술한 최후방으로 한계가 분명했던 충주가 시즌 종료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조직적인 수비력과 결정적인 '한 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현민, 김동권, 알렉산드로가 번갈아 나서는 중앙수비수 조합은 김종필 감독 부임 이후 눈에 띄는 안정감을 확보했고 양 윙백 역시 적극적인 공격 가담보다는 주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측면을 통한 상대의 역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중원에서 임종욱과 김창대를 축으로 한 공격 전개가 여전히 날카롭고 '팀 최고의 골잡이'로 등극한 정성민이 기존의 한흥규와 절묘한 콤비를 이루며 순도 높은 결정력을 과시하고 있어 광주 수비진으로선 단 한 순간도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충주 정성민

리그 최초 해트트릭의 주인공

탄탄한 신체조건과 상대 문전에서 날카로운 슈팅 감각이 일품이다. K리그 클래식에서 두 시즌 넘게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여유가 돋보인다.

Focus

마철준 - 언제나 든든한 '수비라인의 아버지'



팀 최고참이자 플레잉코치인 마철준이 현재 수비라인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은 가히 절대적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베테랑다운 풍부한 경험과 번뜩이는 카리스마로 4백라인을 진두지휘 하고 있으며 세트피스 시 탁월한 공격 가담 가담능력으로 상대 수비진을 흔들어놓는다.

수비수로는 분명 왜소한 신체조건(180cm에 70kg)이지만 탁월한 헤딩 감각과 찰거머리 같은 대인방어, 그리고 볼 줄기를 예측하고 끊어내는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어 상대팀 공격수들이 가장 상대하기 싫어하는 유형의 선수다. 더구나 9년 간 K리그 클래식에서 잔뼈가 굵어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다.

이러한 마철준의 존재는 단순히 현재 보여주는 경기력 측면 뿐 아니라 광주 수비라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정우인, 임하람, 유종현에 이제 갓 유스에서 올라온 오도현까지 팀의 수비라인은 어린 선수들로 채워져 있기에 노장 마철준의 플레이 하나 하나는 이들에게 있어 교과서나 다름없다.